

2차 개정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2025년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전문적 지문을 참고하여 보완·정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돌봄과 지역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협의체 참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차

I. 길고양이 이해

1. 길고양이 정의	8
1) 길고양이 정의	8
2) 고양이의 구분	8
3)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	8
2.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성	9
1) 수명	9
2) 번식	9
3) 먹이활동	10
4) 영역(활동 범위)	10
5) 의사소통	10
6) 배변 활동	10
7) 사회성	10
3. 길고양이 돌봄의 목적	11
1) 길고양이 동물복지	11
2)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11
3) 갈등 최소화	12
4) 공중 보건	12
4. 길고양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13
1) 길고양이 돌봄 결정 과정	13
2) 돌봄 계획 수립	14
3) 고양이 입양 전 셀프 체크리스트	15

II. 길고양이 먹이주기

1. 원칙	18
1) 책임감	18
2) 규칙성	18
3) 청결성	19
2. 급여 대상	19
3. 급여 방식	20
1) 급여 빈도	20
2) 정해진 시각	20
4. 급여 장소	21
1) 적절한 먹이 급여 장소	21
2)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장소	24
3) 급여장소 우수사례	25
5. 급여량	27
1) 적정 급여량 기준	27
2) 신선한 물 공급	27
3) 과잉 급식 방지	28
6. 청결 관리	28
1) 밥그릇 치우기	28
2) 밥그릇 내 급여	28
3) 밥그릇 세척	29
4) 주변 관리	29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Ⅲ. 길고양이 중성화

1. 중성화 개요	32
1) 정의	32
2) 필요성	32
3)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유의점	33
2. 중성화 대상	34
1) 대상	34
2) 무게	34
3) 연령	34
4) 수유 여부	35
3. 중성화 시기	35
1) 시행 시기	35
4. 중성화 추진 주체	36
5. 중성화 과정	38
1) 포획 전 준비	38
2) 중성화 후 방사	39
3) 집중 중성화	40

Ⅳ. 길고양이 건강관리

1. 고양이 주요 질병	42
1) 예방 및 대처방법	42
2.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인수공통감염병)	44
1) 예방 및 대처방법	44
3. 길고양이가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45

Ⅴ. 길고양이 구조 및 서식지 이동

1. 길고양이 구조	48
1) 길고양이 구조 신청	48
2) 길고양이 구조 및 지원의 현실적 한계	48
3) 길고양이 사체 발견 시 행동요령	50
2. 서식지 이동	51
1) 서식지 이동 시 고려 사항	51
2) 서식지 이동하는 지역과의 협의	51
3) 중성화 후 서식지 이동	51
4) 이주 방법 예시	51
5) 서식지 이동 체크리스트	53

VI. 갈등 및 학대 대응

1. 길고양이 돌봄 관련	56
1) 밥자리를 자동차 근접한 곳에 마련한 경우	56
2) 고양이 집으로 인한 화재 발생	57
3) 밥자리 청소 미비	57
4) 배설물 문제	58
5) 고양이의 습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58
2. 돌보미 위협, 동물학대 관련	61
1) 돌보미 협박 및 폭행	61
2) 돌봄 자제 요청	61
3) 길고양이 학대	62
4) 독극물 살포	62
5) 길고양이 학대 영상, 경험 인터넷 공유	62
6) 길고양이 위협	63

VII. 참고 자료

1. 고양이 주요 질병	66
2.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인수공통감염병)	68
3. 참고문헌	69

VIII. 부록

1. 한 손에 들어오는 가이드라인 요약 리플렛	73
2.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고양이 에티켓	75
3. 길고양이 돌봄 계획표(예시)	77

※부록은 절취선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서문

길고양이는 도심 등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길고양이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존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알고, 지켜야 할까요?

첫째, 길고양이들을 중성화해 주세요.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길고양이들의 생존과 건강을 지켜 주지만, 중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길고양이의 번식력 및 개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면, 반드시 중성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개체수 조절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임신·출산 부담 최소화, 관련 질환 예방, 발정기 울음소리 및 영역표시 완화를 통해 고양이의 복지개선은 물론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새끼 고양이의 생존율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만큼, 이러한 열악한 길 위의 생활이 세대를 거듭하지 않도록 반드시 중성화 해주세요.

둘째, 올바른 돌봄을 실천해 주세요. 여전히 길고양이 밥자리를 두고 길고양이 돌보미들과 돌보미가 아닌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마음 편히 밥을 먹도록 밥그릇을 안전한 곳에 두고 다 먹은 후에는 밥그릇과 주변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겨울집 등의 설치물은 동의를 받고 설치함이 바람직합니다. 또, 설치한 기간에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고양이의 건강과 주변 미관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동물입니다. 길고양이를 폭행하거나 독극물 살포 등의 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길고양이와 돌보미, 모든 시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길고양이 돌보미 인터뷰 및 우수 지자체 사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제작하였으며, 법적 준수사항이 아닌 자율적 실천을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돌봄 활동 및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참고하고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

I. 길고양이 이해

1. 길고양이 정의	8
1) 길고양이 정의	8
2) 고양이의 구분	8
3)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	8

2.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성	9
1) 수명	9
2) 번식	9
3) 먹이 활동	10
4) 영역(활동 범위)	10
5) 의사소통	10
6) 배변 활동	10
7) 사회성	10

3. 길고양이 돌봄의 목적	11
1) 길고양이 동물복지	11
2)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11
3) 갈등 최소화	12
4) 공중 보건	12

4. 길고양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13
1) 길고양이 돌봄 결정 과정	13
2) 돌봄 계획 수립	14
3) 고양이 입양 전 셀프 체크리스트	15

I 길고양이 이해

1 길고양이 정의

1) 길고양이 정의

-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고양이를 지칭합니다.

법적 정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2) 고양이의 구분

- 고양이는 서식 환경과 법적 정의에 따라 길고양이, 들고양이, 유기·유실 고양이, 집고양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길고양이는 주로 도시 및 주택가에 서식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TNR(중성화) 관리를 받습니다. 반면, 들고양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들고양이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 들고양이는 야생생물로 분류되어 개체수 관리와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 및 중성화 절차가 규정됩니다.
- 비록 사는 환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의 고양이들은 모두 ‘고양이’ (영명 domestic cat, 학명 *Felis catus*)로서 동일한 생물종입니다.
- 반려묘가 유실·유기 되는 경우 길 위 생활에 적응하여 길고양이가 될 수 있으며, 길고양이, 외출하는 반려묘(외출묘), 들고양이 등 고양이 간의 교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개체수 증가 위험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3)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

- 길고양이는 도시 생태계에 해만 끼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쥐를 잡아 쥐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¹⁾

1) Temporal and Space-Use Changes by Rats in Response to Predation by Feral Cats in an Urban Ecosystem, *Frontiers in Ecology and Evolution*, 6:146.

- 길고양이끼리 싸우는 소리 때문에 소음 피해가 생긴다고 여겨지지만, 이러한 소음은 대부분 발정기 행동에서 비롯되며 TNR을 시행하면 크게 감소합니다.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개체수가 끝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획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진공 효과'로 인해 새로운 개체가 유입되므로 TNR이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 반려 고양이 중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는 '외출모'나, 유실·유기 고양이가 길고양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집고양이의 중성화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길고양이의 생태와 습성

1) 수명

- 길고양이는 교통사고, 질병, 열악한 날씨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반려 고양이에 비해 수명이 짧습니다.

2) 번식

- 고양이는 보통 생후 5~9개월 무렵부터 발정이 시작될 수 있으나, 개체에 따라 빠르면 생후 3.5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첫 발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길고양이는 동지(12월) 이후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번식 준비가 시작되어, 이르면 1월 무렵부터 교미가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신이 이루어지면 출산까지는 보통 약 65일(2개월)이 소요되며, 길고양이는 봄부터 초여름 사이 새끼 고양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히 '봄에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같은 해 안에 번식 가능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어 중성화 시기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 3~4월에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약 6개월 뒤인 9~10월 무렵, 체중이 2kg 전후로 성장해 중성화가 가능한 시기에 들어섭니다. 다만 이 시기의 암컷은 이미 발정이 시작되어 같은 해 임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 5~7월에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약 6개월 뒤 11~1월 무렵 중성화가 가능해지지만, 지역에 따라 겨울철 TNR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 길고양이의 번식은 먹이를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길이와 계절 변화에 따른 생리 현상이므로, 개체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번식이 본격화되기 전(봄·여름 이전) 중성화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먹이 활동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먹이를 주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타납니다.

4) 영역 (활동 범위)^{2), 3), 4)}

- 고양이는 자신의 행동반경을 지키려고 하는 영역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행동반경이 다양해지고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도 합니다. 먹이 자원이 적절한 곳에서 서식하는 고양이는 행동반경이 좁고 다른 고양이와 함께 영역을 공유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반면에 먹이 자원이 적으면 고양이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영역 다툼이 증가합니다.

5) 의사소통

- 울음소리는 고양이들의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입니다. 짹짹기 철이나 싸움 시 특히 큰 소리를 내며,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 ! 중성화를 시행하면 싸움과 짹짹기를 위한 울음(발정기 울음소리)을 매우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6) 배변 활동

- 고양이는 자신의 배변을 흙이나 모래에 묻어 은폐하는 습성이 있어서 배변 장소로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밭을 선호합니다.
- 하지만 도심 환경에서 마땅한 배변 장소를 찾지 못하면 배설물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 모래나 흙이 없는 도시 환경에서는 화단, 아스팔트, 어린이 놀이터 등에 배설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 주민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7) 사회성

- 고양이는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로 진화되었으나 서식 환경에 따라 집단생활도 가능합니다.

2) Kim, J. S., Kim, J. U., Jeon, J. H., Lee, J. K., & Lee, W. S. (2018). Radio-tracking survey of stray cat home range in a suburban area: Non-exclusive use of home ranges in stray cats (*Felis catus*). *Mammal study*, 44(1), 69-75.

3) Nutter, F. B. (2005). Evaluation of a trap-neuter-return management program for feral cat colonies: Population dynamics, home ranges, and potentially zoonotic diseas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4) Schmidt, P. M., Lopez, R. R., & Collier, B. A. (2007). Survival, fecundity, and movements of free-roaming cats. *The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71(3), 915-919.

3 길고양이 돌봄의 목적

1) 길고양이 동물복지

- 주기적으로 먹이, 물을 제공하면 길고양이의 생존율과 복지 상태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길고양이의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쓰레기봉투 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중성화(TNR)는 생식계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출산을 막아 새끼 고양이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임으로써 길고양이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와 복지

- 길고양이의 길 위 생활은 여러 질병, 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은 암컷 길고양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암컷 고양이의 중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하면 번식기에 일어나는 발정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개체 간의 싸움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새끼 길고양이들은 태어나더라도, 여러 질병 등으로 인해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새끼들의 희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중성화가 필요합니다.

2)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 정부는 인도적 방식으로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를 통해 번식능력이 사라지면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및 군집 안에 있는 길고양이 대다수를 중성화하여야 합니다.
- 길고양이를 돌보며 중성화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중성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돌봄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70% 이상 중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고강도의 TNR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책임감 있는 중성화

- 길고양이 중성화는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길고양이 돌보미분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직접 시행하기도 합니다.
- 정부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길고양이 중성화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갈등 최소화

-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면 발정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영역 다툼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길고양이로 인한 사람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 길고양이 밥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개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길고양이 돌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돌보미와 돌보미가 아닌 주민 간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길고양이에 대한 우호적 인식도 증가할 것입니다.

4) 공중 보건

- 밥자리는 감염 취약자(어린이, 노약자)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마련하고, 남은 사료와 빈 그릇이 방치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의 적절한 길고양이 돌봄을 실천하면 주변 환경의 위생과 미관이 개선됩니다.
 - 정기적인 밥주기를 통해 길고양이 간의 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밥을 주는 시간 동안 길고양이를 살피며 적절한 시기에 질병에 대해 대처한다면 고양이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 ※ 길고양이는 쥐의 개체수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 예방

-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고양이와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중성화 시행, 위생관리, 적절한 밥자리 선정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4 길고양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1) 길고양이 돌봄 결정 과정

- 생명을 돌보는 일은 한두 번의 먹이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길고양이를 지속해서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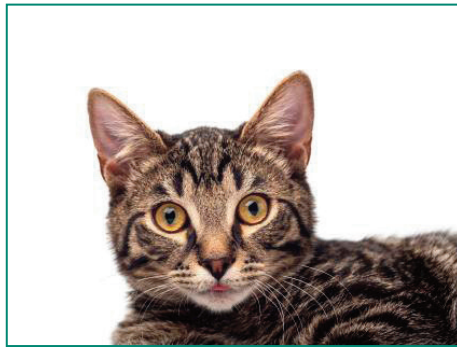
① 길고양이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 인식표나 해당 지역의 분실 신고를 확인하여 유실·유기 고양이인지 확인하고 주인이 있는 경우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② 길고양이라면 치료나 중성화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 중성화 되어있지 않은 길고양이는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거나 진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성화 된 고양이 : 귀 끝을 조금 잘라 표시한다.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

③ 이미 다른 돌보미에 의해 돌봄을 받는 길고양이인지 확인하여 중복된 먹이 급여를 최소화합니다.

④ 적절한 밥자리를 찾는 등 본격적인 돌봄 계획을 세웁니다.

⑤ 돌봄에 필요한 장갑, 쓰레기 봉투, 물티슈 등의 위생용품들을 구비하고 돌봄 활동을 시작합니다.

2) 돌봄 계획 수립

-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들을 파악하고 돌봄 계획표를 이용하면 체계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어 길고양이들의 건강 유지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다른 길고양이 돌보미와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돌보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길고양이 돌보미가 아닌 일반 시민의 협조를 구할 때도 돌봄 계획표가 도움이 됩니다.

길고양이 돌봄 계획표 (예시)						
돌보미			공동돌보미 지역연합체			
기간			위치			
대상개체						
	이름	성별	외형 특징		TNR 여부	예상연령
1						
2						
3						
먹이 급여 시간						
TNR 계획						
구충 계획						
기타						

3) 고양이 입양 전 셀프 체크리스트

■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있었나요?

- 본인이나 가족에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털 빠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양육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세요.

■ 고양이 양육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나요?

- ‘2024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반려묘 양육비용은 약 13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료비, 치료비, 각종 물품 구입비 등이 지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세요.
- 고양이가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냥놀이와 주인과의 교감을 위한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 고양이를 키우기 적절한 환경인가요?

- 기존에 이미 반려동물이 있다면, 합사를 대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특히 알레르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양해 주세요.

■ 동물사랑배움터 ‘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시청하셨나요?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는 반려묘 양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입양 전, ‘동물보호복지 대국민교육 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시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임시보호와 입양을 기다리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묘를 키울 예정이라면, 동물보호센터 입양도 적극 고려해주세요!



동물사랑배움터

■ 고양이를 반려묘로 입양하였다면, 그 후에는 파양하거나 유기하면 안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 학대에 해당)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I

II. 길고양이 먹이주기

1. 원칙	18
1) 책임감	18
2) 규칙성	18
3) 청결성	19
2. 급여 대상	19
3. 급여 방식	20
1) 급여 빈도	20
2) 정해진 시각	20
4. 급여 장소	21
1) 적절한 먹이 급여 장소	21
2)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장소	24
3) 급여장소 우수사례	25
5. 급여량	27
1) 적정 급여량 기준	27
2) 신선한 물 공급	27
3) 과잉 급식 방지	28
6. 청결 관리	28
1) 밥그릇 치우기	28
2) 밥그릇 내 급여	28
3) 밥그릇 세척	29
4) 주변 관리	29

II 길고양이 먹이주기

1 원칙

1) 책임감: 적절한 돌봄 및 중성화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 길고양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돌봄 활동도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돌봄을 시작하면 길고양이가 지역 사회와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밥 주기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며, 해당 개체의 중성화,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등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이 때문에 돌보미가無理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지속 가능한 돌봄 방식, 돌봄 개체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다른 돌보미나 단체들과 함께 돌봄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2) 규칙성: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적당량의 먹이를 줍니다.

- 길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음식과 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대상 개체를 파악하고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돌보미 간의 소통을 통해 먹이를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길고양이 쉼터, 급식소 등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이곳에 오는 고양이는 ○○(단체명 등)이 적절한 양의 먹이를 주면서 지속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고양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길고양이 돌봄에 규칙성이 필요한 이유

- 정기적인 관찰과 규칙적인 급여는 길고양이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먹이를 제공하면 고양이의 출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개체별 상태를 관찰·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 길고양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때는 ‘먹이를 먹는 때’입니다. 먹이를 주는 곳에 몇 마리가 오는지, 어떤 개체가 오는지, 다친 곳이나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길고양이의 건강 및 복지 상태를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3) 청결성: 밥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 먹이는 음식물이 흐트러지지 않는 밥그릇에 담아 주고 급여 후 밥그릇, 쓰레기를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거하는 등 위생, 공중 보건에 신경 써야 합니다.
- 길고양이의 위생과 주변 청결을 유지하는 것(배설물 등 청결 관리)은 고양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 급여 대상

- 먹이를 주는 과정에서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가 확인되면, 해당 개체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중성화를 실시합니다.

〈길고양이 인식개선 방안 조사 결과〉

-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 현황 조사에서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길고양이 갈등이 적은 모범지역과 갈등이 많은 갈등 지역 모두 먹이 급여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나 중성화율이 높은 경우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곳 모두의 시민들이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을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지역 사회의 갈등 완화와 효과적인 공존을 위해서는 중성화되었거나, 할 개체를 대상으로 밥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모범지역(33명)	갈등지역(32명)
먹이 급여 인식	찬성 75.8%	찬성 62.5%
먹이 급여 시 주요 항목	중성화 48.5% > 주민 동의 33.3%	중성화 46.9% > 밥자리 청결 28.1%
캣맘 활동 관련 특이사항	캣맘이 적극적인 협조하여 TNR 실시하고, 급식소 운영	캣맘과 지역 주민 간의 밥자리 문제로 인한 갈등 존재

(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

※ 길고양이 중성화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군·구청에 신청하거나 돌보미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I. 길고양이 중성화'의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3 급여 방식

1) 급여 빈도

- 먹이 급여는 고양이의 건강과 위생 관리를 위해 1일 1회 급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먹이를 주는 시간에는 길고양이의 건강 상태나 먹이를 주면서 길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밥그릇에 먹이가 항상 채워져 있으면, 돌봄 대상 개체수 파악이 어렵고, 고양이들의 개별 건강 상태 확인에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 정해진 시각

- 매일 같은 시간에 먹이를 제공합니다.
- 급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먹이와 그릇을 수거하여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이는 위생을 지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먹이 급여 방식 Q&A

- ◎ 고양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먹이를 놔두어야 할까요?
 - 고양이는 하루에 조금씩 먹이를 나눠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만 먹이를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주장 및 조언⁵⁾도 있습니다.
- ◎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급여하면 먹이를 먹지 못하는 고양이가 생길 것 같아요.
 - 처음 시도할 때는 고양이가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면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과 장소에 고양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이점이 더 많습니다.
-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먹이를 주어야 자신이 관리하는 고양이의 수와 상태를 파악하기 쉽고 보다 효율적인 돌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위생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5) Cornell Feline Health Center

4

급여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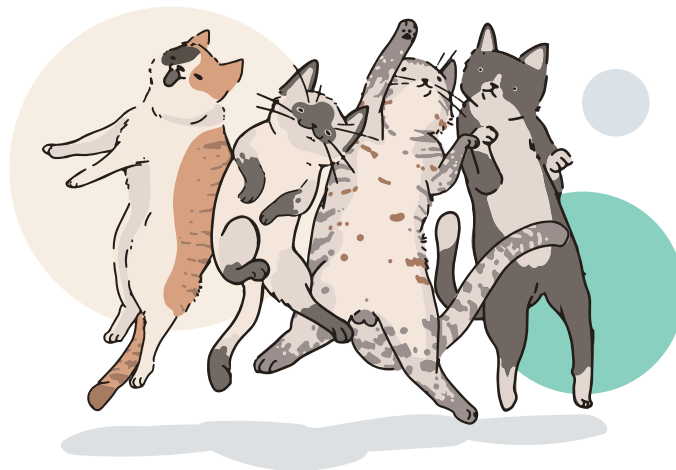
1) 적절한 먹이 급여 장소

■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가 좋습니다.

■ 밥자리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밥자리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

- 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밥을 주는 장소에 따라 법적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 ② 밥자리를 특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은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분쟁(무단적치물로 간주,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건조물 자체 및 그 주변 땅으로서 관리자가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외부와 구분 해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 ③ 밥자리를 설치한 뒤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④ 한편, 밥자리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철거한 사람에게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철거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적절한 급여 장소 예시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급여 후 수거하는 경우 사용이 권장되는 밥그릇



세척 등 관리가 쉬운 밥그릇



일회용 종이 용기(길고양이 섭취 후 수거·폐기)



■ 부적절한 급여 장소 예시



공용장소에 설치되었으나 관리가 미흡한 급식소



차량 아래에 먹이를 두면 차량 파손과
고양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



땅바닥에 먹이를 급여하면 길고양이의
위생이 저하됨



봉지밥을 급여하면 고양이가 장폐색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음



방치된 빈 밥그릇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2023년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2)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할 장소

① (지하) 주차장과 차량 하부는 피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변은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 다칠 수 있고, 차량 표면 스크래치 등과 같은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차량 출발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과 따뜻한 곳을 찾아 차량 위나 엔진룸을 쉼터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차량 주변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차 공간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겨울집·쉼터를 마련하여 차량 접근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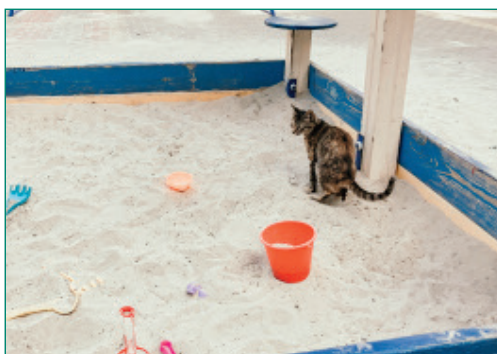


② 도로 주변도 피해야 합니다!

도로 주변은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로드킬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③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나 감염 취약자가 있는 곳은 피해 밥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먹이를 먹는 곳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모래나 흙에 배변합니다. 따라서 모래 놀이터나 맨발걷기길 등 직접적인 감염이 우려되는 곳 근처는 먹이 장소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국립공원·도립공원 포함) 등에서는 길고양이 먹이 급여를 지양해야 합니다.

3) 급여장소 우수사례



OO 아파트 급여 장소 우수사례

OO 아파트에서는 길고양이 돌보미들이 외관이 깔끔한 급식 자리를 마련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고, 위생 관리에 신경 써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TNR 안내문을 함께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아파트 전반의 민원도 줄어들었습니다. 급식자리 주변은 조경을 정돈해 주민들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잠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유의 사항

1) 길고양이 급식소와 일반 밥자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밥자리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곳을 말하며, 그 중 길고양이 급식소는 ‘고정형’ 밥자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구조를 마련해 그 안에 밥그릇과 물그릇을 둡니다. 고정형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 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정형 (길고양이 급식소)



비고정형 (급여 후 수거)

2) 길고양이 급식소에서는 사료를 오래 놔둬도 괜찮을까요?

지자체 급식소의 경우 별도의 운영 기준이 있다면 그를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계속 놔두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지붕이 있는 급식소 내부에도 너구리, 비둘기, 쥐, 까치 등이 들어와 길고양이 먹이를 섭취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야생동물과 길고양이가 접촉하도록 하면 진드기 등의 외부기생충이나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급식소이더라도 고양이들이 일정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청소 및 사료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민 돌봄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 및 물 급여와 밥그릇 세척, 소독 등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3) 급식소를 옮겨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식소를 옮길 때는 먼저 민원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달라고 설명합니다. 급격히 옮기기보다 길고양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약 10m 내외로 옮기고 적응 상태를 확인한 뒤 다음 이동을 진행합니다. 이 방식으로 이동하면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위치 변경이 가능하며, 최종 이동 거리는 원래 위치에서 약 50m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일부 길고양이가 따라오지 못하면, 해당 개체에 한해 추가 이동을 진행합니다.

5 급여량

1) 적정 급여량 기준

- 고양이가 먹는 것을 지켜보고 한 번에 먹는 만큼만 급여합니다.
- 고양이가 일일 권장 섭취량만큼 먹지 않는다면 다른 곳의 먹이 급여 장소나 다른 돌보미에게서도 사료를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는 만큼만 제공하고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고양이 일일 권장 섭취량 예시〉

체중	3kg	4kg	5kg
정상체중	45~50g	55g~60g	65~70g
과체중	35~40g	45~50g	50~55g

종이컵 1컵에는 건식사료 70g 정도가 들어갑니다.

- 사료 제조사의 1일 섭취 권장량과 먹이를 먹는 길고양이 수를 고려하여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한 마리당 종이컵 반 컵(35g) ~ 한 컵(70g)만 주도록 합니다.

※ 반려 고양이의 하루 필요 권장 열량(kcal)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몸무게(kg) × 30 + 70kcal]

×

계수(중성화된 고양이 1.2, 일반적인 성묘 1.6)

2) 신선한 물 공급

- 길고양이에게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합니다.
- 먹이를 줄 때,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을 잘 먹지 않는 개체의 경우 습식 사료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과잉 급식 방지

- 고양이가 지나치게 살이 찌면 민첩성이 떨어지고 생존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고양이에게 적절한 양의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양을 급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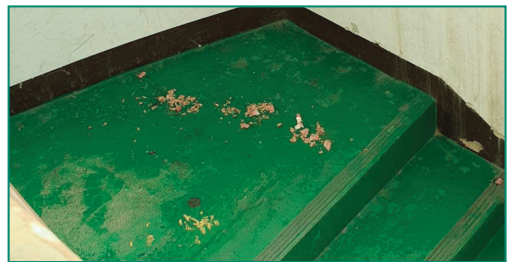
6 청결 관리

1) 밥그릇 치우기

- 먹이를 준 뒤에는 남은 밥그릇이나 캔 등의 용기를 치워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먹이를 모두 먹을 때까지 기다린 후, 먹이와 그릇을 바로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밥그릇을 방치하면 길고양이 간 질병 전염, 세균 번식, 악취 등의 원인이 되므로 길고양이 건강에 해가 되고 공중위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 ※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의 가이드에서는 30분 후 수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밥그릇 내 급여

- 고양이의 질병 감염 방지 및 위생을 위해 바닥에 먹이를 급여하지 않고 반드시 밥그릇에 담아 급여합니다.
- 자동급여기는 위생·안전·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합니다.⁶⁾
- 습식캔은 상처 및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통째로 급여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먹이 급여 후 밥그릇을 치우지 않은 사례와 바닥에 먹이를 급여한 사례 예시

(출처: 서울특별시, 2023년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6) Lister, A., (2021), Feline Infectious Respiratory Diseas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animal shelters, 289-320.

3) 밥그릇 세척

- 먹이를 줄 때마다 밥그릇을 세척하는 것이 좋지만, 밥그릇을 매번 세척하기 어렵다면 일회용 용기를 통해 급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 일회용 용기에 급여한 경우에는, 급여 후 즉시 용기 수거 및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밥그릇과 물그릇 모두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세척할 때에도 사람 그릇과 분리하여 세척해야 안전합니다.
 - ※ 하절기에는 모기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물을 자주 갈아주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물 그릇을 측면까지 닦아 주어야 합니다.

4) 주변 관리

-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밥자리, 급식소의 위생관리는 필수적입니다.
- 위생과 청결을 위해 항상 주변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합니다.
-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II

III. 길고양이 중성화

1. 중성화 개요	32
1) 정의	32
2) 필요성	32
3)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유의점	33
2. 중성화 대상	34
1) 대상	34
2) 무게	34
3) 연령	34
4) 수유 여부	35
3. 중성화 시기	35
1) 시행 시기	35
4. 중성화 추진 주체	36
5. 중성화 과정	38
1) 포획 전 준비	38
2) 중성화 후 방사	39
3) 집중 중성화	40

Ⅲ 길고양이 중성화

1 중성화 개요

- ❗ 중성화 수술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므로 일정 수준의 위험이 따릅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길고양이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쇠약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수술 자체만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1) 정의

- 길고양이 중성화(Trap-Neuter-Return, TNR)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서(Trap) 거세·불임 시술 등 생식능력을 제거(Neuter)한 후 방사(Return)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필요성

- 반복되는 번식과 출산을 방지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합니다.
- 고양이의 생식계통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웃 주민들의 불편함이 감소합니다.
 - 번식을 위한 울음소리, 영역 다툼 등과 같은 행동들이 줄어듭니다.
 - 수컷들의 영역표시 행동인 소변 분사 행동이 감소합니다.
- 길고양이에 대한 지역 사회 수용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중성화 수술을 받아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길고양이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우호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역 사회 수용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이 지속될 때 길고양이의 건강 및 복지 상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와 갈등 상관관계

- ◎ 길고양이 밀도가 높을수록 갈등이 많아지며 중성화를 통해 밀도가 줄어들면 갈등도 같이 감소합니다.
- 2021년도 서울시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결과, '갈등 지역'은 갈등이 없거나 적은 '모범 지역' 길고양이 서식밀도가 높고 중성화율이 낮았습니다.

구 분		길고양이 서식현황		
		최대밀도(마리/km ²)	중성화율(%)	자묘율(%)
일반지역		150	49.0	13.7
수용도 조사지역	모범지역	138.1	54.3	6.5
	갈등지역	273.3	47.5	16.1

(출처: 서울특별시, 2021년 길고양이 서식 현황 모니터링 결과 보고)

중성화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① 암컷 고양이

- 정기적으로 오는 발정기에 커다란 울음소리를 냅니다. 주로 새벽에 울음소리를 내며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입니다.
- 주변에 다른 암컷과 수컷 고양이와 함께 있는 경우 마킹, 싸움, 큰 울음소리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성화되지 않은 암컷 고양이는 자궁염, 유선종양, 유선염, 자궁축농증, 자궁내막염 등 생식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큽니다.

② 수컷 고양이

- 잦은 싸움으로 인한 소음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 싸움으로 인해 상처와 같은 부상을 입을 가능성도 커지고, 물림을 통해 전파되는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FIV)나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증(FelV)와 같은 질병 감염 확률이 높아집니다.
- 강한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므로 냄새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 교미할 암컷을 찾기 위해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 중성화되지 않은 수컷 고양이의 경우 호르몬으로 인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고환암 등 생식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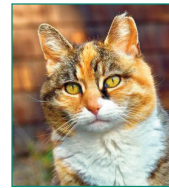
3) 효과적인 중성화를 위한 유의점

-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는 서로 번식이 가능한 지역(무리)에서 최대한 많은 개체가 중성화되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는 모든 고양이는 중성화되어야 합니다.
 - 인접한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들도 중성화 되어야 합니다.
- 첫 번식을 시작하기 전에 중성화해야 개체수 조절 효과가 큽니다.
- 중성화(TNR)는 포획·중성화·방사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Management)가 병행되어야 합니다(M-T-N-R-M).
 - ※ M-T-N-R-M: 모니터링(Monitoring) → 포획(Trap) → 중성화(Neuter) → 제자리 방사(Return) → 사후 관리(Management)의 약자로, 단순한 수술을 넘어 사전 파악부터 방사 후 정착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길고양이 관리 방식을 뜻합니다.
 - 안정적인 급식과 돌봄 관리는 포획을 수월하게 할 뿐 아니라, 수술받은 고양이가 기존 생활권에서 밀려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반면, 중성화 이후 관리가 부족하면 중성화된 개체가 도태되고 새로운 개체가 유입되는 '진공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성화 비용의 효과가 약화되고, 개체수 조절 및 민원 완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고양이를 포획했다가 놓아주게 되면 길고양이의 포획 틀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 다시 포획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면밀히 관찰한 후 중성화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고양이만 포획하여야 합니다. (예 : 육안으로 보기에다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고양이는 포획하지 않습니다.)
- 반려 고양이라도 질병 예방 및 원치 않는 임신 방지를 위해 중성화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는 고양이 유기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성화한 고양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는 왼쪽 귀 끝을 살짝 잘라주는 표식을 남겨놓습니다. 주변에서 왼쪽 귀 끝이 살짝 잘린 고양이가 있다면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입니다. 또한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돌보미에 의해 보호,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2 중성화 대상

1)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중성화 지원 사업은 중성화되지 않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전에 무게·연령·수유 여부 등 대상 길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성화 제외 길고양이
 - 몸무게 2kg 미만
 -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개체
 - ※수태(受胎) -아이를 뱌. 또는 새끼를 뱌. ※포유(哺乳) -어미가 젖으로 새끼를 먹여 기름.
 - 기존에 중성화되어 귀 끝이 절개된 개체

2) 무게

- 국내에서는 몸무게 2kg 이상의 고양이부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합니다.

3) 연령

- 고양이는 생후 4~9개월 무렵부터 발정기에 들어서며, 연중 번식이 가능합니다. 새끼 고양이의 경우 최초 번식 이전에 중성화하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돌보고 있는 무리에서 새끼 길고양이가 발견되면 중성화 일정을 바로 계획해야 합니다.

4) 수유 여부

- 수유하는 어미 고양이의 경우 새끼들의 생존율 증가를 위해 중성화 진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 고양이의 경우 대략 4~8주령 사이에 모유 섭취가 줄어들고 이유식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 이후에는 새끼 고양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으므로, 새끼의 먹이 섭취 방법 등을 살펴 어미의 다음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고양이의 중성화

- 임신한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길고양이는 야생성과 강한 경계심을 지닌 경우가 많아, 마취 없이는 상태를 상세히 살피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마취 후에 임신 상태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마취제가 투여되었으므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새끼와 어미의 복지와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3 중성화 시기

1) 시행 시기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에 따르면 여름과 겨울에도 주의 사항을 잘 지키면 중성화 수술은 연중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암컷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에 가장 적절한 계절은 늦가을~초겨울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기에는 계절성 다발정 동물인 고양이가 발정을 멈추기 때문에 중성화 시 고양이의 부담을 가장 완화(절개 부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다음 번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고양이 입소는 봄(3~4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가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봄에 태어난 개체가 수개월 내 번식 가능한 성묘로 성장하여, 여름과 가을에도 새끼 고양이 입소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러한 번식의 고리가 충분히 차단되지 않으면 보호시설의 수용 및 관리 여건에 부담이 커지고, 어린 새끼 고양이의 건강 악화와 폐사 위험이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와 입양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개체수 증가를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적인 중성화(TNR)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장마철·혹서기·혹한기에 포획 시 주의 사항

- ① 장마철에는 포획 시 포획 틀에서 길고양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② 혹서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해야 합니다.
 - 포획 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에 설치할 것
 - 이른 아침이나 일몰 후에 포획할 것
 - 지표면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하고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 것
- ③ 혹한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해야 합니다.
 -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을 설치할 것
 -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

장마철·혹서기·혹한기에 방사 시 주의 사항

- ① 장마철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② 혹서기에는 아침 또는 저녁 등 하루 중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방사해야 합니다.
- ③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방사일 기준 기온이 0℃ 이하로 예보된 경우에는 방사를 지양해야 합니다.

4 중성화 추진 주체

■ 지자체 중성화 지원 사업 신청

- 지자체는 중성화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포획자 및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 중성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 돌보미가 직접 중성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의 중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성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길고양이 돌보미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중성화되지 않은 길고양이가 있다면 지자체에 연락하여 중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돌보미의 직접 시행

- 길고양이 돌보미는 본인이 돌보는 고양이의 건강 상태, 임신 여부 등을 파악하여 중성화를 진행합니다.
- 이때, 주변 돌보미들과 협의하여 본인이 돌보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길고양이들을 군집으로 중성화하는 것이 개체수 조절과 갈등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 돌보미, 길고양이 돌보미가 아닌 주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계획하여 중성화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협력하면 중성화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 대상 고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고양이의 신체적 특징 등을 파악한 후 지자체 담당 부서에 중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길고양이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 ※ 중성화 지원 사업은 연간 지원 가능한 예산이 제한적이므로, 신청 전에 한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물보호 담당 부서 확인 방법>

국가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 부서
국번 없이 120 (다산 콜센터)



길고양이 TNR 신청



5 중성화 과정

1) 포획 전 준비

■ 중성화 계획을 세웁니다.

- 길고양이의 상태(중성화 여부, 수유기, 임신 등)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 주변에 내가 돌보지 않는 다른 고양이들이 있다면 해당 돌보미나 지역 돌보미 협회 등과 협조해 중성화를 추진합니다.

■ 먹이 주기를 중단합니다.

- 먹이를 24시간 정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쉽게 트랩에 설치한 먹이를 먹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포획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 안전한 포획 틀(통땃)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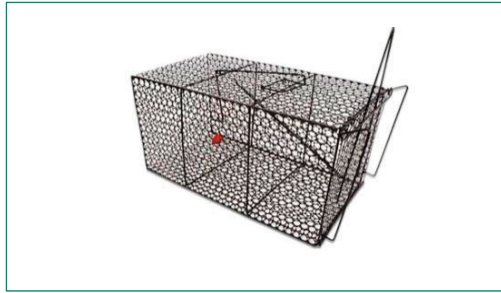
- 길고양이 포획 시에는 길고양이 전용 통땃을 사용합니다. 뉴트리아·족제비용 등 다른 용도의 통땃이나 구조가 불안정한 저가형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통땃을 받으면 장갑을 끼고 문과 발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며, 발판식 통땃 사용을 권장합니다.
- 문이 잘 닫히지 않거나, 녹·오염이 심하거나, 탈출·부상 사례가 있었던 통땃은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합니다.
- 오염된 통땃은 털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락스 1 : 물 30 비율로 희석한 용액으로 세척하고, 10분 이상 방치한 후, 깨끗이 행귀 햇볕에서 완전히 말려 재사용합니다.

※ 포획 틀 설치 후에는 담요나 가림막 등으로 포획 틀을 덮어두는 것이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안전한 발판식 통 덧



부적절한 먹이걸이식 통덧(뉴트리아용 덧 등 사용 금지)



포획 틀을 설치한 모습



포획 틀을 덮어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줌

■ 포획 틀의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이 덧은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위한 고양이 포획용 틀입니다.
이 틀을 옮기거나 가져가지 마세요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 포획 중입니다.
- 중성화는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 및 이해 부탁드립니다.

포획자, 담당자 000, 연락처 000

※ 지자체 사업인 경우 지자체 명(00 구청)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추가

2) 중성화 후 방사

■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합니다.

※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제자리 방사를 하여야 하고, 방사할 때는 길고양이가 방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후 포획 틀의 입구를 열어 방사합니다. 이때 포획 틀의 입구는 도로와 반대 방향으로 열려있어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성화 기간 동안 주변 환경(개발 사업, 재해 등)의 변화 및 기존 서식지에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여 포획 지점에 방사하지 못할 경우 포획한 장소 인근 또는 더 나은 장소에 방사할 수 있습니다.

3) 집중 중성화

- 집중 중성화란 한 동네나 일정 구역을 정해, 해당 구역의 길고양이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포획·중성화한 뒤 제자리로 방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집중 중성화는 새끼 고양이의 지속적인 출생을 억제하여 해당 구역의 개체수 증가를 안정화하고, 발정 울음·영역 다툼 등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을 줄여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지내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사례

해외 사례

- ◎ Gunther(2022)의 연구에서는, 12년 동안 실험 지역 및 인접한 지역 모두에서 길고양이 TNR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70% 이상의 길고양이가 TNR 되었을 때, 실험 지역의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길고양이 개체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연속적이면서 지속적인 고강도의 TNR을 해야만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 호주의 도시지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TNR이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개체군의 69% 중성화와 입양이 병행되었을 때 개체수가 감소하였습니다(Tan et al. 2017).
- ◎ 미국에서 실시한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71~94%의 고양이들이 중성화되어야 개체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Foley et al. 2005).
- ◎ Nutter(2005)의 연구에서는 적어도 75~80%가 중성화되어야 개체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 일본의 '지역 고양이' 정책은 중성화를 통한 장기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줄이기를 전제로, 길고양이 돌보미-일반 시민-정부가 협업 활동을 수행하는 돌봄 방법입니다.
- ◎ 길고양이 돌보미는 중성화를 포함한 책임 있는 돌봄을 실시하며, 일반 주민들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는 길고양이 학대 및 유기 방지 등의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 결과 길고양이 돌보미들은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과 길고양이의 공생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

- ◎ 00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TNR(포획-중성화-방사) 관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길고양이 밀집 지역 0.087km²를 대상으로 단기간 집중 중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전 조사에서는 총 32마리가 확인되었으며, 중성화율 28.6%, 자묘 비율 25.4%로 번식 가능 개체 비중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 ◎ 2024년 10~11월 사이 총 50마리를 집중적으로 중성화한 결과, 2025년 조사에서는 중성화율이 73.3%까지 상승하고 자묘 비율은 13.3%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성화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번식 가능한 개체 수가 줄어들었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체군 구조가 점차 안정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 ◎ 이 사례는 일정 기간 안에 높은 비율(약 70% 이상)의 중성화를 달성할 경우 번식 억제 효과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 실증 자료입니다. 또한 집중 중성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규 개체 유입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지역 길고양이 개체군을 더욱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IV

IV. 길고양이 건강관리

1. 고양이 주요 질병	42
1) 예방 및 대처 방법	42
2.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인수공통감염병)	44
1) 예방 및 대처 방법	44
3. 길고양이가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	45

IV 길고양이 건강관리

1 고양이 주요 질병

1) 예방 및 대처 방법

- 고양이 사이에 전염되는 질병은 밥그릇이나 물그릇을 공유하면 서로 옮기도 합니다. 용기의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줍니다.
- 한 장소에 너무 많은 고양이가 모이면 먹이 활동, 그루밍, 투쟁 등으로 전염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적절한 수의 고양이 그룹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양이 질병에 대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수의사의 상담 및 진료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동물병원 상담 시 고양이의 증상 사진 또는 동영상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예방접종과 구충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려 고양이의 경우 기본 예방접종 후 매년 추가접종을 실시하지만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길고양이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예방접종 1회를 맞는 것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의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7) 8) 9)}
 - 진드기와 같은 외부기생충과 몸속에 사는 내부기생충,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시키거나 피부에 바를 수 있습니다. 구충제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돌보는 길고양이와 돌보미의 상황에 맞추어 수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7) Fischer, S. M., Quest, C. M., Dubovi, E. J., Davis, R. D., Tucker, S. J., Friary, J. A., ... & Levy, J. K. (2007). Response of feral cats to vaccination at the time of neutering.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30(1), 52-58.

8) Reese, M. J., Patterson, E. V., Tucker, S. J., Dubovi, E. J., Davis, R. D., Crawford, P. C., & Levy, J. K. (2008). Effects of anesthesia and surgery on serologic responses to vaccination in kitten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33(1), 116-121.

9) Griffin, B. (2025). Care and control of community cats. In S. E. Little (Ed.), *The cat: Clinical medicine and management* (2nd ed), 1464-1486

〈주요 고양이 질병〉

명칭	주요 증상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 고열(40℃ 이상의), 구토, 혈액성 설사, 운동실조 발생함(소뇌 형성 부전)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 상부 호흡기 감염(일명 ‘고양이 감기’), 재채기, 콧물, 발열, 결막염 발생함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	• 재채기, 콧물, 발열, 결막염, 구내염, 식욕부진, 폐렴 발생함
고양이 클라미디아 감염증	• 재채기, 기침, 결막염, 끈적한 노란 눈곱 발생함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 대부분 무증상 또는 일시적 설사·구토, 일부에서 복부·신장·뇌 염증 발생함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증	• 빈혈, 구내염, 신경학적 질환, 장염, 유산 동반함
고양이 면역결핍증	• 감염 초기에 일시적인 발열, 림프절 확장함 •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기능 저하 및 감염 위험이 증가함
귀 진드기 감염증	• 검은 귀지 다량, 가려움증, 머리 흔들기 증상이 관찰됨
만성 치은·구내염	• 혀 종창, 식욕 부진·감소, 구취 동반함
치아 흡수성 병변	• 구강 통증, 구강 점막·혀 통증 동반함

2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인수공통감염병)

1) 예방 및 대처 방법

- 건강한 상태로 보이는 고양이도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원인체(병원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길고양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고양이가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바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물리거나 핏대를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상처 부위를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소독을 한 후,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돌봄 활동을 하며 인수공통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고양이와 직접적인 접촉을 자주하는 직군이거나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 미리 파상풍 예방 접종을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노약자, 임산부 등은 돌봄 활동 시 위생 수칙(장갑 착용하기, 소독하기 등)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명칭	감염경로
고양이 핏대(요소병)	감염된 고양이가 핏대거나 핏대를 때 전파
피부사상균증(링웍)	감염된 동물 또는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SFTS 바이러스 보유 진드기에게 물릴 때 또는 감염된 개와 고양이의 혈액, 침, 소변 등과 접촉했을 때
톡소플라스마증(원충감염)	감염된 고양이의 배설물과의 접촉 (배설물 속 기생충이 난포낭 상태일 때 전파)
광견병	광견병에 감염된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감염 동물의 타액에 사람의 상처가 노출

3

길고양이가 섭취하면 안되는 음식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음식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
감자, 토마토 (특히 토마토 잎)	소화기·비뇨기·신경계 문제 유발 가능
개 사료	영양 불균형 위험(개 사료는 타우린 부족으로 장기 섭취 시 건강 문제 유발 가능, 고양이용 간식 캔의 주식 대체 지양 필요)
곰팡이 핀 음식, 상한 음식	구토·설사 및 장기 손상 위험
당분이 많거나 기름진 음식	비만 위험, 치과질환 및 당뇨병 유발 가능
버섯	쇼크 위험, 심한 경우 사망 가능
양파, 마늘	적혈구 손상에 따른 빈혈 유발 가능
우유(사람용)	사람용 우유는 유당 함유로 설사·구토 유발 가능, 심한 경우 쇼크 위험(반려동물용 우유 급여 필요)
음식물 찌꺼기	과다 섭취 시 영양 불균형 우려, 섭취 금지 식품 포함 가능성 존재
익힌 뼈	익힌 뼈는 파편화로 목·위·장 손상 위험
참치캔	참치캔은 염분·기름 과다로 영양 불균형 우려, 캔 모서리로 인한 상처 위험 존재
초콜릿,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식품은 심장·신경계 기능 부전 유발 가능
포도, 건포도	신장 손상 위험
효모	효모 팽창에 따른 가스 발생 가능, 복통·불편감 유발 가능, 위장 파열 위험

출처: Cat Protection (호주) 'Hazards for your cat' Factsheet 103 Enmore Road, Newtown 2042 t 9519 7201 f 9557 8052 e info@catprotection.org.au www.catprotection.org.au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V

V. 길고양이 구조 및 서식지 이동

1. 길고양이 구조	48
1) 길고양이 구조 신청	48
2) 길고양이 구조 및 지원의 현실적 한계	48
3) 길고양이 사체 발견 시 행동요령	50
2. 서식지 이동	51
1) 서식지 이동	51
2) 서식지 이동하는 지역과의 협의	51
3) 중성화 후 서식지 이동	51
4) 이주 방법 예시	51
5) 서식지 이동 체크리스트	53

V

길고양이 구조 및 서식지 이동

1 길고양이 구조

- ❗ 길고양이 구조는 길고양이의 자생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 판매를 목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1) 길고양이 구조 신청,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 새끼 고양이들이 발견되더라도, 어미가 잠깐 먹이를 구하기 위해 떠났거나 보금자리를 옮기는 중일 수 있으므로 선불리 데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 새끼 고양이를 선불리 만지는 경우, 어미가 자신의 새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버릴 수 있으므로 귀엽다고 만지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는 어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잠깐씩 들여다보고,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데려오지 않아야 합니다.
 -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미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거리를 둡니다.
 - 잠시 후 살펴보았을 때 어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새끼들이 함께 모여 잠들어 있다면 어미가 돌보고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길고양이 구조 및 지원의 현실적 한계

- 길고양이 응급 구조는 의미 있는 행동이지만,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있으니 구조 전 꼭 확인하세요.
 - 치료비 지원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며, 공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치료비를 구조자가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지자체·센터의 지원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구조 기관은 인력·시설·예산 여건의 한계로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자는 본인의 여건과 보호·치료 가능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상담한 뒤 구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응급 구조는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시간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응급처치방법〉

◎ 사람과 고양이 모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세요.

- 다친 고양이는 공포와 통증 때문에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 천천히 접근하고, 수건이나 담요로 몸을 덮어 안정시킵니다.
- 맨손으로 잡지 말고, 두꺼운 장갑이나 박스를 이용합니다.

◎ 길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구분	증상	응급조치
출혈	피가 계속 남	깨끗한 천으로 압박, 즉시 병원 이송
골절	다리를 절거나 들고있음	움직이지 않게 신문지, 골판지 등으로 고정, 즉시 병원 이송
교통사고 등 외상	숨이 가쁘거나 비틀거림	조심히 담요로 감싸 병원으로 즉시 이송
저체온증	몸이 차가움, 떨림	담요나 핫팩(직접 닿지 않게)으로 감싸 체온 유지, 즉시 병원 이송
의식 없음	움직이지 않음, 반응 없음	호흡 확인 즉시 병원으로 이동

◎ 길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 박스나 캐리어에 담요를 깔고 조용히 이동합니다.
- 병원 도착 전, 전화로 상황을 미리 알립니다.
※ 예시: “길고양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 필요시 관할 사·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합니다.
(서울: 120 다산콜센터 / 전국 공통: 110)

◎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 사람 약, 음식, 연고의 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억지로 안거나 세게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 외상이 없더라도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출혈 가능성 있음).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 전문기관에 확인해보세요.

-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실 신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유실·유기 고양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인이 확인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계를 돕습니다.

길고양이를 구조하는 일은 때때로 힘들고 벅찰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며, 내가 모든 생명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3) 길고양이 사체 발견 시 행동 요령

1. 현장 안전 및 기본 확인

- 사체가 도로에 있는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신고를 우선하며, 무리한 접근은 피합니다.
- 발견 위치(주소·인근 표지물), 발견 시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신고(상황에 따라 선택)

- 일반 도로(국도·시내도로 등)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연락처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 ❗ 서울: 다산콜센터(120)
 - ❗ 타 지역: 지역번호 + 120(문자·전화) 또는 국번 없이 110 신고 가능
 - ❗ 다산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며, 일부 지자체는 운영시간이 상이하나 운영시간 외에는 당직실 연결 가능
 - ❗ 경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직접 연락해야 할 수 있으며, 사유지(집 마당 등)에서는 신고 불가
- 고속도로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연락처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3. 사체 처리 원칙

- 길고양이 및 반려동물 사체의 개인 매장은 불법입니다.
 -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 배출, 장묘시설 이용, 동물병원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개인이 원할 경우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반려동물 장례업체 찾는 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영업자 →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 동물장묘업

4. 학대 의심 시

- 사체는 냉장 보관 해야하며(아이스팩 가능), 부패 시 부검이 불가합니다.
- 발견 당일 또는 일주일 이내 부검을 요청하기를 권장합니다.
- 학대가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동물학대 신고하여 부검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해야합니다.
- 개인이 부검을 원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 후 안내에 따라 사체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 검사비는 무료이나 사체 반환은 불가합니다.
- 개인 의뢰는 물리적 가해·방치 여부 확인에 한정되며, 사료·음수 독극물 검사는 불가하고, 결과만으로 수사·현장조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역 동물보호단체에 상담 또는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서식지 이동

1) 서식지 이동 시 고려 사항

■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므로, 이동이 필요하다더라도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서식지 이동은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길고양이의 생존이 위험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기존 생활권 밖의 먼 지역에 방사하는 행위는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을 위한 포획 행위는 개발사업지역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서식지 이동하는 지역과의 협의

■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길고양이의 원래 서식지의 개체수 파악, 건강 상태, 중성화 비율, 급식소의 위치 및 개수 등이 파악되어야 하고 이주 예정 지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주 예정지의 위치와 거리, 경로, 서식하는 길고양이의 정보들을 파악한 후에 세부적인 이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가족 단위나 같이 다니는 길고양이들을 함께 이주시키면 길고양이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도 익숙한 고양이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중성화 후 서식지 이동

■ 서식지 이동 시에도 TNR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식지 이동할 길고양이는 물론, 이주 예정지역의 길고양이들도 TNR이 시행되어야 이주 예정지의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주 방법 예시

① 점진적 이주

- 근거리 이주의 경우 먹이를 주는 장소를 서서히 이동하면서 길고양이들을 새로 이주할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② 이주 방사

- 장거리 이주의 경우 이주 예정지에 계류장을 최소 1개월~2개월 이상 운영하여 길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예정지의 다른 길고양이들과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계류 기간 후에 길고양이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 먹이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류장 문을 개방하고 계류장 내부에 먹이와 물을 제공합니다.

- 길고양이가 이주 예정지에 완전히 적응한 후에는 계류장을 철거합니다.
- 계류장 설치에 인력, 노동력, 비용 등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먹이 장소를 서서히 이동하는 방법에 비해 성공률이 낮은 편이므로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 이주가 완료된 후에도 이주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는지 파악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지역 안전한 길고양이 이동 절차

※ 개발사업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를 포함합니다.

① 현장 인식하기: 재개발 지역 내 길고양이 개체수, 급식 장소 등 파악

- 지역 돌보미와 소통이 가능한 경우, 돌보미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 지역 돌보미와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가 보이는 장소에 협조 안내문을 붙여 안전한 이주 방식을 위한 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현장 미팅을 통한 계획 수립: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 계획 수립

- 현장에서 직접 길고양이가 주로 머무는 장소를 파악해서 철거 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장소를 파악합니다.
- 철거 일정과 동선을 미리 파악한 후 길고양이들의 이동 동선과 급식소 이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공사장 일대에 안내 현수막 또는 알림판 등을 게시하여, 공사 관계자가 길고양이 이동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길고양이 이동 통로 및 음수대 설치

- 공사가 진행되면 철제 펜스로 인해 길고양이가 개발 사업 지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모서리에 고양이 이동통로를 설치하여 고양이가 고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 내 돌보미가 길고양이를 돌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음수대를 설치하여 길고양이의 생명 보호 대응안을 마련합니다.



④ 대피 과정 매뉴얼 마련

- 철거 시 길고양이가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물을 뿌립니다.
- 포크레인 작업 전, 길고양이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에 표식을 하여, 개발 사업 전 남아있는 길고양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고양이가 고립되어 탈출하기 어려운 공간을 미리 확인하여 개방해 두어 길고양이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한 후 철거합니다.

서식지 이동 사례

- ① 재건축지역 주변 공원 방향과 아파트 방향으로 4차선 도로가 있어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방향에 주택가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허락을 받고 중간중간에 급식소를 설치하여 길고양이들을 점진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 ② 이미 철거된 재개발 지역과 전철이 맞닿아 있고 천까지 흐르고 있어 천 위의 작은 지상 공영주차장으로 급식소를 이동하여 길고양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③ 전철역과 철로로 둘러싸이고 길고양이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는 주변 아파트가 있던 재개발 지역에서 육교를 이용해 육교 계단 초입과 중간에 임시 급식소를 설치하고 매일 몇 미터씩 급식소를 이동시켜 길고양이 이주를 유도했습니다.

(출처 : 00 동물보호단체 도시 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활동 사례집)

5) 서식지 이동 체크리스트

공통 필수 준비 및 계획		체크(V)
1	이주가 재개발·철거, 학대 등으로 인해 고양이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임을 확인하셨나요?	
2	이주 대상 고양이의 TNR(중성화 및 귀 커팅)이 완료되었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셨나요? (미중성화 시 이주 전 TNR 계획 수립)	
3	이주 예정지가 안전하고, 자원이 충분하며, 민원 가능성이 극히 낮은 장소인지 확인하셨나요?	
4	이주 예정지의 돌보미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셨나요?	
5	가족 단위 또는 함께 다니던 군집을 묶어 이주시키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6	(재개발 시) 개발 사업 지역에 안내문·현수막을 게시하고, 고립 방지를 위한 이동 통로와 임시 음수대를 설치하셨나요?	
7	이주 예정지는 TNR이 90% 이상 완료되어있나요?	
8	혹서기 혹은 혹한기를 제외하고 이주 계획을 세우셨나요?	
방법 1: 점진적 이주		
1	기존 서식지에서 새 서식지까지 안전하고 단계적인 급식소 이동 경로를 설정하셨나요?	
2	고양이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일 또는 며칠 간격으로 급식소 위치를 서서히 이동하셨나요?	
3	이동 과정 동안 고양이가 낙오되지 않고 정해진 이동 경로를 따라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셨나요?	
4	최종 목적지 도착 후, 고양이들이 새 급식소 위치를 확실히 인식할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급식을 제공하셨나요?	

방법 2: 포획 후 계류 방사		체크(V)
1	이주 예정지에 포식자와 기상 변화로부터 보호되는 탈출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계류장(Safe Haven)을 마련하셨나요?	
2	고양이가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2주~1개월 이상의 계류 기간을 설정하셨나요?	
3	계류장 내부에 은신처(Box), 밥·물그릇, 화장실을 배치하여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셨나요?	
4	계류 기간 동안 매일 방문하여 건강 상태와 음식 섭취량을 확인하고 청결을 유지하셨나요?	
5	계류 기간을 마친 후, 고양이가 새 환경과 관리자에게 안정된 모습(식사·배변 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방사 시점을 결정하셨나요?	
6	이주 예정지의 고양이들과 계류 공간 안에 있는 고양이들이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도록 야외 합사 준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나요?	
최종 방사 및 사후 관리		
1	(계류 방사 시) 방사할 때 계류장 문만 열어두고, 고양이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사용하셨나요?	
2	방사 직후 고양이가 바로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하고, 익숙한 먹이를 주변에 제공 하셨나요?	
3	방사 후 최소 1~2개월 동안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생존·정착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셨나요?	
4	급식 후 잔반을 바로 회수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셨나요?	
5	(계류 방사 시) 고양이가 충분히 정착한 이후 계류장을 철거하고, 이주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재포획 등 사후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VI

VI. 갈등 및 학대 대응

1. 길고양이 돌봄 관련	56
1) 밥자리를 자동차 근접한 곳에 마련한 경우	56
2) 고양이 집으로 인한 화재 발생	57
3) 밥자리 청소 미비	57
4) 배설물 문제	58
5) 고양이 습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58
2. 돌보미 위협, 동물학대 관련	61
1) 돌보미 협박 및 폭행	61
2) 돌봄 자제 요청	61
3) 길고양이 학대	62
4) 독극물 살포	62
5) 길고양이 학대 영상, 경험 인터넷 공유	62
6) 길고양이 위협	63

VI 갈등 및 학대 대응

1 길고양이 돌봄 관련

1) 밥자리를 자동차 근접한 곳에 마련한 경우

Q

겨울이라 고양이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머무르고 따뜻한 차량 보닛 위에 자주 올라가니 지하 주차장에 밥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중 몇 명이 저 때문에 차 보닛에 고양이 발자국과 흠집이 생겼다며 피해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A

- 돌보미가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고 해서 해당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차량 근처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 돌보미는 길고양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돌보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돌보미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공터 등에서도 고양이에게 밥을 급여할 수도 있음에도 차량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곳에 식기를 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돌보미는 주차장에서 밥을 주는 행위가 차량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고양이 집으로 인한 화재 발생

Q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옆 빈터에 길고양이 겨울집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워서 스티로폼과 헨 옷만으로는 고양이들이 겨울을 나기 힘들 것 같아 골판지 재질의 고양이집 바닥에 열선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열선 위에 계속 헨 옷을 덮어 놓으니 가열돼 고양이 집에 불이 났고 불이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번져 집 두 채가 훼손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 추운 겨울일지라도 길고양이 집에는 단열재와 지푸라기 깔짚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니 길고양이 집에 전기형 난방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길고양이의 집에 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과열되는 등의 이유로 불이 난다면 이웃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집의 화재로 타인 소유의 주택 및 물건 등을 소훼하는 경우 형법 제170조에 따른 실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3) 밥자리 청소 미비

Q 저는 길고양이 돌보미입니다. 최근에 제가 길고양이 밥을 주는 곳에 새로운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기존에 있던 고양이의 텃세에 밀려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것 같아 밥이 든 밥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도 와서 더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치우지 않은 밥그릇 때문에 아파트가 더러워지고 벌레들이 꼬인다고 주민들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고양이 밥그릇을 치우지 않은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 사료 급여 후 일정 시간 내 치워야 하나, 먹이 및 밥그릇을 그대로 두어 위생관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밥그릇을 세척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여 밥을 제공한 후 빈 그릇을 방치하거나 밥그릇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혹은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보미는 길고양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워주어야 합니다.

4) 배설물 문제

Q

우리 동네는 아이들 모래 놀이터와 공원이 함께 있습니다. 한적한 장소라 근처에 길고양이 밥자리를 마련했고 거울집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밥자리 근처에서 제가 고양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공공 보건에 위해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겠다는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A

- 일반적으로는 길고양이의 배설 행위는 자연현상으로, 돌보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돌봄 행위를 하는 장소 근처의 배설물은 치워주는 등 위생관리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래 놀이터 근처에 길고양이 밥자리와 쉼터를 마련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길고양이가 옮길 수 있는 질병이 많지는 않으나 배설물을 통하여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전염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5) 고양이 습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Q

자동차 주변에 밥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고양이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차량 주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량 아래나 주위를 피해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고양이 습성 때문인지 제가 돌보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 올라가 흠집을 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 고양이가 갖고 있는 습성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유형은 돌보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길고양이의 생활(자연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상황이므로 돌보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과 같이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Q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스스로 강추위를 피해 지하 전력실에 들어갔다가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공급이 수 시간 동안이나 중단됐다가 복구되었고 정전으로 가스도 끊겨 입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몇몇 입주민들은 저희 아파트 길고양이를 돌보미를 고소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한 입주민이 다른 길고양이를 지하실에 가둔 채로 문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고양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하실 문을 폐쇄한 입주민을 동물학대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A

- 길고양이 돌봄 행위와 길고양이가 전력실에 들어가 정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돌보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지하실을 길고양이를 죽일 의도인 고의로 폐쇄 조치하여 고양이를 갇혀 죽게 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VS 길고양이 겨울집

- ◎ 겨울에 길고양이가 지하 주차장이나 보일러실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집을 외부에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유지가 아니라면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설치물인 만큼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겨울집을 지하실에 두는 것은 차량, 감전 사고를 더 유발시키고 고양이에게도 위험하므로 부적절합니다.

- 겨울집을 설치한다면, 겨울 동안만 설치하고 2월 말에는 반드시 철거합니다.
- 겨울집은 급식소와 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식소 주변에 설치하면 고양이들의 동선이 겹쳐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겨울집은 오히려 고양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내부에는 담요나 수건 등을 깔되 젖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 너무 크거나 지저분한 겨울집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덧대기, 증축은 삼가주세요.
- 정기적인 겨울집 청소는(청소 시 마스크·장갑 착용) 악취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이해를 받는 데에는 안내문을 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O 아파트에서는 길고양이 돌봄미들이 깨끗한 겨울집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겨울철 주차장 출입과 관련된 민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즉시 겨울집을 수거·보관하여 방치로 인한 민원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집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민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겨울집에 붙일 안내문 예시>

이 공간은 길고양이 겨울집입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울이 지나는 대로 수거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 돌보미 위협, 동물학대 관련

1) 돌보미 협박 및 폭행

Q.1

저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어떤 분이 고양이 밥자리 주변에 저를 협박하는 문구가 적힌 종지와 함께 학대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진을 10여 차례 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한 주민이 심한 욕설을 하며 저를 벽 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Q.2

우리 동네에도 제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마다 나와서 고양이에게 밥 주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저에게 아주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십니다.

A

- 길고양이 돌봄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돌보미를 협박, 폭행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57조에 의한 상해죄, 제260조에 의한 폭행죄에 해당되어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돌봄 자제 요청

Q

저는 길고양이 때문에 시끄럽고 주변이 지저분하니 먹이를 주지 말라는 돌봄 자제 요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는 행위가 불법도 아닌데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니요. 이런 행위도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 길고양이 돌봄 자제 요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요청을 하면서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길고양이 학대

Q 저희 옆집에 언제부턴가 길고양이가 나타나 병아리와 닭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집 아저씨가 철제로 만든 고양이 덫을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한 후, 우리에게 가두고, 각종 도구로 길고양이를 학대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키우던 맹견 우리에게 고양이를 던져서 고양이가 개에게 물어뜯겨 죽도록 했습니다. 옆집 주인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독극물 살포

Q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자주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카페 정원에 고양이가 축 늘어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양이 밥그릇에 제가 평소에 주던 먹이와는 다른 것들과 하얀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길고양이를 없애기 위해 먹이에 일부러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 - 독극물을 섭취한 길고양이가 죽음에 이르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2항 제1호의 동물학대에 해당되고,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길고양이 학대 영상, 경험 인터넷 공유

Q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고양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찍어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친구들이 모인 SNS 단체 채팅방에도 비슷한 영상을 전달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며 영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하라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A -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하거나 학대 갤러리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처벌 대상이 되며 동법 제97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 등을 게재하기만 해도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길고양이 위협

Q

식구들과 동네 천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어떤 분이 길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려고 우산을 휘둘렀습니다. 고양이가 놀라 근처 있던 대피소로 피하자 그 분은 우산으로 대피소를 몇 차례 가격했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도망가자 또다시 고양이를 폭행하려고 우산을 휘두르며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하지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갔고 그걸 본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소리를 질러주어서 그 분은 고양이 쫓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고양이가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도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A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위반 사례의 판례를 종합해 봤을 때,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이에 버금갈 정도로 동물의 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혹은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형력은 법률적으로 동물의 신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모든 물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동물학대를 판단할 때,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힐 정도로 직접적인 힘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동물학대로 해석됩니다.

-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는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포함되지만(제2조 제9호),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에서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현재로서는 고양이에게 위협을 주어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동물학대에는 포함되지만, 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체적 상처나 고통을 주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Ⅶ

VII. 참고 자료

1. 고양이 주요 질병 66
2.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수공통감염병) 68
3. 참고문헌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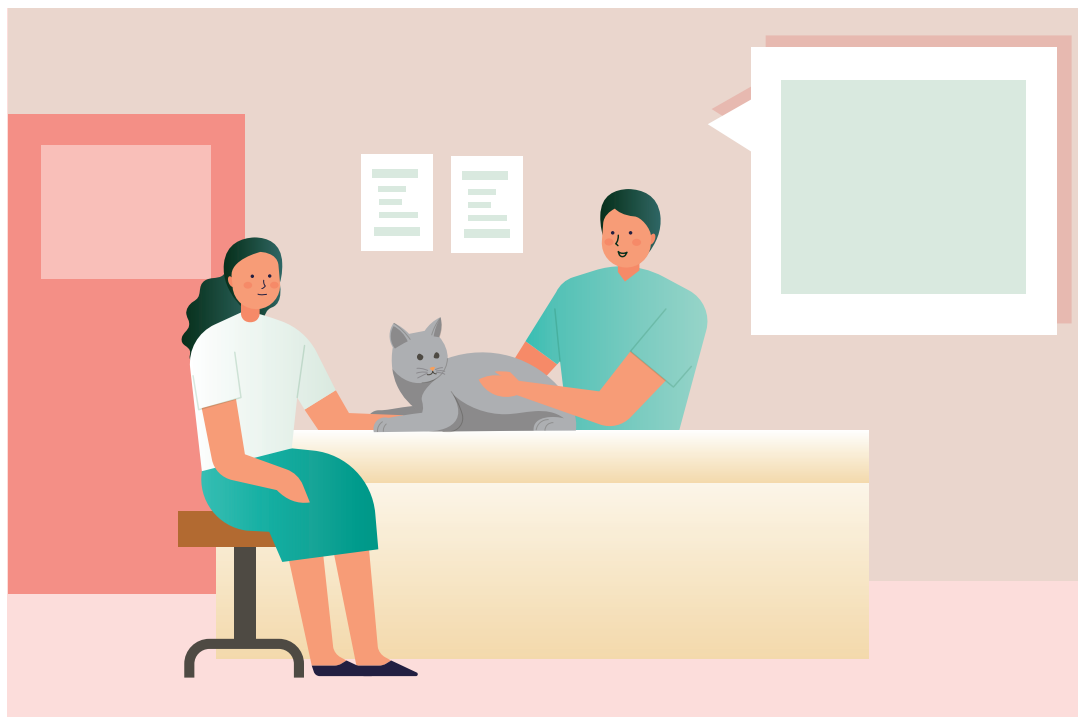
VII 참고 자료

1 고양이 주요 질병

명칭	감염경로	주요 증상	기타사항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 FPV 감염 고양이 배설물·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함	• 고열(40℃ 이상), 구토, 혈액성 설사, 운동실조 발생함(소뇌 형성 부전)	• 구토·설사로 인한 탈수 지속 시 폐사 위험, 치사율 높음, 중증 시 수의사 상담 후 인도적 처치(안락사) 검토 가능, 어린 고양이에서 발병 빈도 높음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 감염 고양이 직접 접촉, 콧물·타액을 통해 전파함	• 상부 호흡기 감염(일명 '고양이 감기'), 재채기, 콧물, 발열, 결막염 발생함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	• 감염 고양이 접촉, 오염 물건·음식·사람 손 접촉을 통해 전파함	• 재채기, 콧물, 발열, 결막염, 구내염, 식욕부진, 폐렴 발생함	
고양이 클라미디아 감염증	• 감염 고양이 눈곱·콧물·분비물·배설물 접촉을 통해 전파함	• 재채기, 기침, 결막염, 끈적한 노란 눈곱 발생함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 배설물, 침(주로 구강)을 통해 전파함	• 대부분 무증상 또는 일시적 설사·구토, 일부에서 복부·신장·뇌 염증 발생함	• FCoV 감염 고양이 중 일부에서 변이 바이러스(FIPV)로 발전 후 백혈구 감염이 발생함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증	• 감염된 고양이의 타액과 소변을 통해 전염	• 빈혈, 구내염, 신경학적 질환, 장염, 유산 동반함	•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고양이 면역결핍증	• 바이러스는 감염묘의 타액을 통해 배출되며, 물림에 의해 주로 전파	• 감염 초기에 일시적인 발열, 림프절 확장함 •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기능 저하 및 감염 위험이 증가함	• '고양이 에이즈'로 불리나,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음
귀 진드기 감염증	• Otodectes cynotis 기생충에 의해 외이도가 감염됨	• 검은 귀지 다량, 가려움증, 머리 흔들기 증상이 관찰됨	• 연령 무관 발병 가능, 어린 고양이에서 흔함
만성 치은·구내염	• 감염 및 면역학적 반응 관련 발병함(치은염·인두염과 연관)	• 혀 종창, 식욕 부진·감소, 구취 동반함	
치아 흡수성 병변	• 치관 에나멜질·치근 시멘트질 손실로 인해 발생함	• 구강 통증, 구강 점막·혀 통증 동반함	• '고양이 우식증'으로도 알려짐

고양이 종합백신(FVRCP) 접종의 중요성

- 고양이 종합백신(FVRCP)은 범백혈구감소증(범백),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 등 길고양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입니다(Squires et al., 2024).
-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은 고양이의 건강과 지역 내 질병 확산 예방(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FVRCP 접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질병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돌보는 고양이의 수, 지역 상황, 개체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임 있게 판단합니다.
-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입소한 어린 고양이(4주령부터)에 대해 20주령까지 2~3주 간격으로 FVRCP 변형생백신(MLV) 접종을 권장합니다(Squires et al., 2024).
- 어린 고양이는 면역력이 약해 감염 위험이 크므로, 보호소 체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기 입양 또는 임시보호로 신속히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ASV, 2022).



2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인수공통감염병)

명칭	감염경로	주요 증상	기타사항
고양이 할클럼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토넬라 헨셀라균(<i>Bartonella henselae</i>)에 의해 발생함 • 건강한 고양이의 입 속에도 바르토넬라균이 발생함 • 감염된 고양이가 할클거나 물었을 때 전파되지만, 물린다고 해서 반드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해졌을 때 증상이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 림프종, 발열, 두통,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 고양이 할클럼병에 감염되었을 때 뇌염, 심내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함 	
피부사상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곰팡이(<i>Microsporum canis</i>, <i>Trichophyton mentagrophytes</i>)에 의한 질병으로 감염됨 •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으로 감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감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 장갑을 끼는 등 주의가 필요함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레보바이러스(Phlebovirus)에 의해 발생 • SFTS 바이러스 보유 진드기에 물릴 때, 감염된 개와 고양이의 혈액, 침, 소변 등과 접촉 했을 때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열(38~40℃)이 3~10일 지속, 혈소판감소, 구토, 설사(치사율 3~10%) 등의 증상 동반함 	
톡소플라스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톡소플라스마 곤디(<i>Toxoplasma gondii</i>) 라고 불리는 원생동물(기생충의 일종)에 의해 발생함 • 감염된 고양이의 배설물과의 접촉 시 발생함 (사람에게 전염되는 난포낭을 3주 동안 대변으로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은 무증상이며,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어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인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노약자, 임산부는 주의가 필요함 	
광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사바이러스(Lyssavirus)에 의해 발생 • 광견병에 감염된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감염 동물의 타액에 사람의 상처가 노출됐을 때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은 다양하지만 고양이 광견병의 전형적인 징후는 공격성, 불안함, 무기력, 발성 증가, 식욕 부진, 쇠약, 방향감각 상실, 마비, 발작, 급사 등을 동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는 2013년 이후 발생 보고 없음

3 참고문헌

- 길고양이 서식현황 및 관리기준 수립 연구 용역. (2021). 경기도
- Aguilar, G. D., & Farnworth, M. J. (2013).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unmanaged cat colonies over a 20 year period in Auckland, New Zealand. *Applied Geography*, 37, 160-167.
- Alley Cat Allies. "What about Complaints?" Managing Communications When Your Shelter Adopts a SNR or TNR Policy.
- Alley Cat Allies. (2006). Bringing Feral Cat Populations Under Control: Targeted Trapping. *Feral Cat Activist*.
- Barratt, D. G. (1997). Home range size, habitat utilisation and movement patterns of suburban and farm cats *Felis catus*. *Ecography*, 20(3), 271-280.
- Cat Protection 'Hazards for your cat' Factsheet 103 Enmore Road, Newtown 2042 t 9519 7201 f9557 8052 e info@catprotection.org.au www.catprotection.org.au
- Cornell Feline Health Center
- Edwards, G., De Preu, N., Shakeshaft, B., Crealy, I., & Paltridge, R. (2001). Home range and movements of male feral cats (*Felis catus*) in a semiarid woodland environment in central Australia. *Austral Ecology*, 26(1), 93-101.
- Fieberg, J., & Kochanny, C. O. (2005). Quantifying home.range overlap: the importance of the utilization distribution. *The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69(4), 1346-1359.
- Foley, P., Foley, J. E., Levy, J. K., & Paik, T. (2005). Analysis of the impact of trap-neuter-return programs on populations of feral cat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27(11), 1775-1781.
- Fischer, S. M., Quest, C. M., Dubovi, E. J., Davis, R. D., Tucker, S. J., Friary, J. A., ... & Levy, J. K. (2007). Response of feral cats to vaccination at the time of neutering.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30(1), 52-58.
- Goltz, D. M., Hess, S. C., Brinck, K. W., Banko, P. C., & Danner, R. M. (2008). Home Range and Movements of Feral Cats on Mauna Kea, Hawai? i. *Pacific Conservation Biology*, 14(3), 177-184.
- Gunther, I., Hawlena, H., Azriel, L., Gibor, D., Berke, O., & Klement, E. (2022). Reduction of free-roaming cat population requires high-intensity neutering in spatial contiguity to mitigate compensatory effec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9(15), e2119000119.
- Griffin, B. (2025). Care and control of community cats. In S. E. Little (Ed.), *The cat: Clinical medicine and management* (2nd ed), 1464-1486
- Harper, G. A. (2004). Feral cats on Stewart Island/Rakiura. DOC science internal series, 174.
- Ireland, T., & Neilan, R. M. (2016). A spatial agent-based model of feral cats and analysis of population and nuisance controls. *Ecological Modelling*, 337, 123-136
- Kmecová, N., Weissová, T., & Vdoviaková, K. (2016). Behaviour problems of cats reared individually or in coexistence with other animals (cats, dog). *Folia Veterinaria*, 60(4), 58-62.
- Kim, J. S., Kim, J. U., Jeon, J. H., Lee, J. K., & Lee, W. S. (2018). Radio-tracking survey of stray cat home range in a suburban area: Non-exclusive use of home ranges in stray cats (*Felis catus*). *Mammal study*, 44(1), 69-75. Cornell Feline Health Center

- Kortis, B. (2013). Neighborhood Cats TNR Handbook, Neighborhood Cats.
- Levy, J.K. (2021). Feline Leukemia and Feline Immunodeficiency Viruses. In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Animal Shelters, 546-561.
- Lister, A.,. (2021). Feline Infectious Respiratory Disease.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in animal shelters, 289-320.
- Liberg, O., Sandell, M., Pontier, D., & Natoli, E. (2000). Density spatial organisation and reproductive tactics in the domestic cat and other felids. incollection, 119-148.
- McGregor, H. W., Legge, S., Potts, J., Jones, M. E., & Johnson, C. N. (2015). Density and home range of feral cats in north-western Australia. Wildlife Research, 42(3), 223-231.
- Merck Veterinary Manual
- Mirmovitch, V. (1995). Spatial organisation of urban feral cats (*Felis catus*) in Jerusalem. Wildlife Research, 22(3), 299-310.
- Nutter, F. B. (2005). Evaluation of a trap-neuter-return management program for feral cat colonies: Population dynamics, home ranges, and potentially zoonotic diseas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 Ogan, C., & Jurek, R. (1997). Biology and Ecology of Feral, Free-Roaming, and Stray Cats Pp. 87-91. Mesocarnivores of Northern California Biology, Management, & Survey Techniques, Workshop Manual, Humboldt State Univ., Arcata, CA,
- Recio, M. R., & Seddon, P. J. (2013). Understanding determinants of home range behaviour of feral cats as introduced apex predators in insular ecosystems: a spatial approach. Behavioral Ecology and Sociobiology, 67, 1971-1981.
- Reese, M. J., Patterson, E. V., Tucker, S. J., Dubovi, E. J., Davis, R. D., Crawford, P. C., & Levy, J. K. (2008). Effects of anesthesia and surgery on serologic responses to vaccination in kitten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33(1), 116-121. Cornell Feline health Center
- Šálek, M., Drahníková, L., & Tkadlec, E. (2015). Changes in home range sizes and population densities of carnivore species along the natural to urban habitat gradient. Mammal Review, 45(1), 1-14.
- Schmidt, P. M., Lopez, R. R., & Collier, B. A. (2007). Survival, fecundity, and movements of free-roaming cats. The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71(3), 915-919.
- Spotte, S. (2014). Free-ranging cats: behavior, ecology, management. John Wiley & Sons.
- Squires, R.A., et al. (2024). 2024 guidelines for the vaccination of dogs and cats - WSAVA Vaccination Guidelines Group. Journal of Small Animal Practice, 65(5), 277-316.
- Tan, K., Rand, J., & Morton, J. (2017). Trap-neuter-return activities in urban stray cat colonies in Australia. Animals, 7(6), 46.
- The Association of Shelter Veterinarians (2022). The Guidelines for Standards of Care in Animal Shelters: Second Edition. Journal of Shelter Medicine and Community Animal Health, 1:1-76. <https://doi.org/10.56771/ASVguidelines.2022>
- Temporal and Space-Use Changes by Rats in Response to Predation by Feral Cats in an Urban Ecosystem. Frontiers in Ecology and Evolution, 6:146.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VIII

VIII. 부록

- 1. 한 손에 들어오는 가이드라인 요약 리플렛 73
- 2.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고양이 에티켓 75
- 3. 길고양이 돌봄 계획표(예시) 76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다음에 수록된 자료는 절취선에 따라
뜯어서 바로 사용하시거나,
동물사랑 배움터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밥 먹고 싶어요!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 사람들의 동행이 적고,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좋아요.
깨끗한 바그루트 세척이 쉬운 바그루트이나 먹인 후 수거할 수 있는 일회용 종이 용기를 사용하세요.
소유자·관리자 등의 필수 공공장소나 타인의 땅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명바닥에 급여된 먹이 먼지와 오염물질이 섞이기 쉬워 고양이의 위생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차량 이레, 주차장 안전통에 들어가 다치거나, 차량 손상·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차도 근처 소음과 사고 위험이 높아 고양이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린이 놀이터, 병원 주변 배변 습성 때문에 위생 문제와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고양이가 조류·소형동물을 사냥할 수 있으므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급여하지 않습니다.
봉지법 고양이는 봉지와 밥을 구분하지 못해 비닐을 함께 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폐색이나 질식 등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길고양이란?

- 도심이나 마을에서 사람 곁에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예요.
주인은 없지만, 사람의 생활 속에서 먹이를 얻고 터전을 지키는 우리 동네의 작고 독립적인 이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동네 지킴이, 길고양이!

- 길고양이는 도심 속의 작은 환경 파수꾼이에요. 쥐나 해충을 잡아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도시의 균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왜 돌봐야 할까?

- 길 위의 낭이들도 따뜻한 밥 한 끼와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조금의 관심과 정성으로 고양이의 삶이 달라지고 사람과 고양이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의 또 다른 가족

- 반려묘, 유기묘, 길고양이 모두 같은 '고양이'예요. 사는 곳이 다를 뿐, 모두 사람발을 자국이 있는 생명이지요. 따뜻한 시선 하나가 길 위의 하루를 바꿔줄 거예요.



책임감

시작했으면 꾸준히! 종성화, 청결, 건강까지 함께 챙기며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돌봐요.

규칙성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적당량만 급여해요. 돌보는 낭이를 파악하고 중복 급여는 피해주세요.

정결성

먹이는 그릇에 담이 깨끗하게, 먹은 뒤엔 잔여물과 쓰레기를 바로 정리! 깔끔한 밥자리가 낭이도, 이웃도 행복하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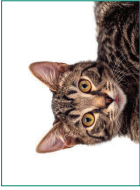


길고양이 중성화 (TNR)

- TNR이란? 고양이를 포획(Trap) → 중성화 수술(Neuter) → 다시 방생(Return) 하는 과정이에요.
- 이 과정을 통해 새끼 출산을 막고, 발정기 울음소리/싸움/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자궁염고환염 같은 질병 예방 효과도 있어 고양이의 건강과 마을의 평화를 함께 지켜줍니다.



중성화된 고양이: 귀 끝에 잘린 표시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

누가 할 수 있나요?

-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 돌보미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가 있다면 지자체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 내 고양iman이 아니라, 주변 무리(군집)를 함께 중성화하면 개체수 조절과 같은 감소 효과가 커져요.
- 이웃 돌보미들과 소통해 협력 중성화를 진행해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양이의 건강 상태와 임신 여부를 살펴봐요. ▶ 중성화가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신청해요. ▶ 지자체는 포획자와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수술을 진행해요. ▶ 수술 후 회복 기간을 거쳐 원래 장소로 돌아갑니다.

신청 방법 누구나 신청 가능!

길고양이 돌보미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지자체를 통해 중성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위치와 특징 확인 자주 보이는 장소와 외형적 특징(털색, 체형 등)을 기록해 두요.

사진·영상 준비 신청 시 고양이의 사진이나 짧은 영상 첨부 시 포획과 수술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확인하거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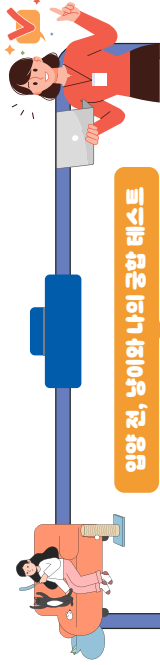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알림·자료 ▶ 지자체 담당부서 안내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먼저 살펴보기

- 새끼 고양이가 혼자 있거나 비로 구조하지 마세요.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갔거나 이동 중일 수 있습니다.
-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미가 돌아오지 못할 수 있으니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펴봐 주세요.
-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지 말고, 거리를 두고 조용히 관찰해 주세요. 사람 냄새가 묻으면 어미가 접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잠시 후 다시 봤을 때 새끼들이 모여 잠들어 있다면, 어미가 다녀간 거예요.
- 12시간 이상 어미가 돌아오지 않거나, 사고 흔적·심한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 ✓ **가족 회의 통과했나요?** 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게 중요해요.
- ✓ **털 날림, 관찰나요?** 종에 따라 다르지만, 고양이는 매일 털갈이를 해요.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털과 함께하는 일상이 됩니다.
- ✓ **알레르기 확인 완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눈, 코, 호흡기에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가족 모두 검사하고, 관촬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 ✓ **지갑도 준비했나요?** 고양이 사료, 모래, 병원비등으로 한달에 13만원 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 ✓ **놀아줄 시간이 있나요?** 양이는 혼자서도 잘 놀지만, 관심과 교감은 필수예요. 방치하지 않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 ✓ **집 구조는 안전한가요?** 창문, 배란다, 틈새 점검 필수! 고양이는 점프와 탐험의 달인이라 위험한 곳도 쉽게 올라가요.
- ✓ **고양이 관련 교육을 들으신 적 있나요?** 입양 전엔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apis.or.kr/) 에서 반려묘 입양 전 교육 영상을 꼭 시청해 보세요. 먹이 급여, 화장실 관리, 행동 이해 등 처음 집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 ✓ **마지막 질문! 포기 안 할 자신 있나요?** 고양이의 평생은 15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길어요. 이를 때도, 힘들 때도 함께할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이어나갈 결심, 출산처럼 삶의 변화가 찾아와도 가족이 된 고양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꼭 생각해 보세요.

길고양이 돌봄 중 갈등 예방과 대응 안내

차량 근처 밥자리 주의

차량 주변이나 지하주차장은 피하세요. 길고양이가 올라가면 차량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통행이 적고 청소가 쉬운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세요.

겨울철은 따뜻하지만 안전한게!

스티로폼과 집이면 충분히 따뜻해요. 전기열선·난방기 사용은 화재 위험으로 절대 금지!

- ▶ 단열재만 사용하고, 겨울이 끝나면 철거하세요.

밥자리 청소는 기본 예의

먹은 뒤에 밥그릇과 음식물은 바로 치우기! 전반을 방치하면 악취·해충·미원이 생기고, 심하면 위생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은 함께 정리해요

길고양이 배설은 자연스럽지만 놀이터·공원 주변은 청결 관리가 필수예요.

- ▶ 어린이 시설 근처에는 밥자리나 쉼터 설치를 피하세요.

안전한 돌봄을 위한 대응 안내

돌봄은 불법이 아니지만, 폭언·폭행·협박을 받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접 대응하지 말고 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학대는 영백한 범죄입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동물이며, 학대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학대 장면을 목격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신고하세요.

함께 지키는 길, 따뜻한 공존

깨끗한 관리와 안전한 배려만으로도 사람과 길고양이가 모두 편안한 동네가 됩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전문보기

자세한 지침과 법적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라인을 확인해 주세요.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고양이 에티켓



길고양이란?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고양이를 지칭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우리 동네 길고양이를 따뜻한 시각으로 보아주세요.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길고양이는 도심 내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쥐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길고양이와 시민 모두가 공존하기 위하여 길고양이를 도시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아량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가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돌볼 때도 이웃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이웃의 입장도 헤아려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소통과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먹이는 적정량만, 밥그릇과 밥자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X)



- 주변에 길고양이 돌보미가 밥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 주변 돌보미와 소통해 더 안전한 돌봄 활동을 해주세요.

돌보는 길고양이는 반드시 중성화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 주세요! (X)



-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영역을 유지해 다른 고양이 유입을 막아 갈등과 소음을 줄여요.
- 왼쪽 귀 끝이 약 1cm 잘려 있어 구분할 수 있으며, 발정 울음이나 출산이 없어요

길고양이를 억지로 만지거나, 새끼 고양이를 함부로 구조해서는 안돼요!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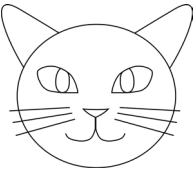
- 길고양이는 먼저 위협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 어미 고양이는 먹이 활동 중일 수 있으며, 낯선 냄새가 묻으면 새끼를 돌보지 않을 수 있어요.

겨울철, 시동을 걸기 전 자동차 엔진룸에서 잠자고 있을지 모를 길고양이를 깨워 주세요! (X)



겨울철 길고양이 엔진룸 사고 예방법

- ① 겨울철에는 시동 전 엔진룸을 두드리고 차 문을 세게 닫아요.
- ② 경적을 울린 뒤 시동을 켜요.

길고양이 돌봄 계획표 (예시)						
돌보미			공동 돌보미 지역연합체			
기간			위치			
대상 개체						
이름		성별	외형 특징		TNR 여부	예상연령
1						
2						
3						
먹이 급여 시간						
TNR 계획						
구충 계획						
기타						

길고양이 돌봄 계획표 (예시)						
돌보미			공동 돌보미 지역연합체			
기간			위치			
대상 개체						
이름		성별	외형 특징		TNR 여부	예상연령
1						
2						
3						
먹이 급여 시간						
TNR 계획						
구충 계획						
기타						

길고양이 돌봄 계획표 (예시)						
돌보미			공동 돌보미 지역연합체			
기간			위치			
대상 개체						
이름		성별	외형 특징		TNR 여부	예상연령
1						
2						
3						
먹이 급여 시간						
TNR 계획						
구충 계획						
기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발 행 일 | 2025년 12월

편 집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